

##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교육 커미셔너이시며 국제본부 목회자 개발국장이신 대니얼 콕 박사님, 아시아 태평양 지구 지구장이신 마크 로우 박사님, 아-태지구 교육 코디네이터이신 존 무어 목사님, APNTS 이사장이신 카포아 마우러 목사님, 지역사회 대표자님들, 국내외 교육기관 관계자 여러분, 자매 교단 관계자 여러분, 나사렛 여러 지방회 감독님과 지도자 여러분, 개교회 목회자분들, 높이 평가할 만한 동문들, 뛰어난 교수진들, 충성스러운 직원들, 사랑하는 학생들, 그리고 특별한 손님으로 참석하신 여러분!

먼저 저는 아시아 태평양 나사렛 신학대학원의 역사에 있어서 특별한 이 행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APNTS를 통해 이루어진 교육적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앞으로 이루어 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과 지구는 오늘 같은 날이 오도록 만든 나사렛 세계선교국과 나사렛 국제교육위원회의 지금까지의 헌신에 대해 많은 빛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언덕 위의 도시로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소망과 꿈과 삶을 쏟아 부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여기에 커닝햄박사님과 임승안박사님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던 전직 원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필리핀 격언 중에 **“Kung may tinanim, may aanihin.”** 즉, **“만일 심으면 거둘 것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참된 진리입니다. 여기에는 행동의 강요가 없습니다. 다만 “만일 심으면”이라고 함으로서 당신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밝힙니다. ‘만일’ 당신이 심으면 뭔가를 필연적으로 추수하게 됩니다. 그 뭔가는 여러분의 수고에 따르는 것이겠지만 또한 여러분이 당면하는 조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 격언에 대입해 보자면 무엇을, 어디에, 언제 심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땅을 경작하고, 씨앗을 뿌리고, 당면하는 조건들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추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적당한 시간에 결과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초대 한국선교사로서 지금의 한국 나사렛대학교로 성장한 나사렛신학원을 처음 설립한 오은수박사님은 1977년에 “만일” 원칙에 다시 직면하게 되셨는데 나사렛교회

중앙위원회에서 아-태지구에 신학대학원을 설립하기로 승인하고 초대 원장으로 오은수박사님을 선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연구와 기도가 진행되었습니다. 무엇을 심을지는 결정되었지만 “어디에(장소)”와 “언제(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APNTS 20주년에 대해 글을 쓴 커닝햄박사님에 의하면 오은수박사님과 당시 세계선교국장이셨던 제럴드 존슨 국장님께서 부지를 알아 보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하였고 수도 마닐라 외곽 리잘의 타이타이에 위치한 ‘어린이들의 정원’ 고아원을 “장소”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자체가 추수의 준비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은수박사님께서서는 교단의 지도자들이 기도해왔던 아시아 각국의 학생들을 위한 학문적, 영적 훈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있는 세계적 도시 마닐라가 최적의 장소라고 교단 지도자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었다고 커닝햄박사님은 말했습니다.

비록 다음 해에 개교하기로 “언제”의 목표를 정했었지만,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언제”는 향후 몇 년간 미국 캔사스시티에 있는 나사렛신학대학원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와 연장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돌짜과 가시덤불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서 학교를 바기오시로 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은수박사님은 신학대학원은 대중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 있어야 하며 미국 신학대학원의 분교형태가 아니라 아시아 현장에 맞도록 웨슬리 신학을 상황화 할 수 있는 아시아인 교수진들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1983년에 공식적으로 독자적인 신학대학원임을 확인하였고 2층짜리 학교 본부건물을 짓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는데 그 건물은 후에 오은수관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신학사로부터 신학석사와 목회학박사에 이르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필리핀정부의 승인을 취득했고 1983년 11월 4일에 첫 수업이 개설되었습니다. 오은수박사님은 학교의 모토를 “그리스도를 위한 문화의 다리놓기”로 정하고 학교의 찬송으로 “주 예수 안에 동서나” (통합찬송 526장)로 정했는데 아시아-태평양 나사렛신학대학원으로 이름지어진 정원 위에 진정한 국제적 신학대학원을 “심기” 위한 그의 헌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은수박사님은 어느 채플 시간에 설교를 통해 선교전문가들이 10-40 창문으로

여기는 이 중요한 지역에 학교를 “심은” 일을 회상한 바 있습니다. 10-40 창문이라 함은 가장 선교가 안된 55개국에 있는 지역으로서, 미전도 인구가 4억 9천만명이며 단지 10%의 국제선교사가 활동하지만 공공지역에서의 전도가 극단적으로 어렵거나 정부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는 “통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핵심 지역에 이 학교를 세운 것은 매우 잘 한 일입니다. 잃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긴급한 과제는 왜, 어디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선교라는 방식을 통해 신비한 방법으로 성취하시지만 교회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의무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전략적인 요충지 - 아시아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 세계에서 오는 학생들과 공동의 언어로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 에 신학대학원을 세우는 일은 단순히 사람의 노력으로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향한 우리 웨슬리 성결신학과 교단의 헌신은 다음과 같은 웨슬리의 말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온 세계를 우리 교구로 삼았으니, 나는 어떤 곳에서든지, 기꺼이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웨슬리) 이 때를 위함이었습니다. 즉 아시아와 그 이외 지역에서 전통적인 선교사들이 더 이상 충당되지 못하여서 현지인 목회자와 자비량 선교사들이 그 공간으로 들어 가야 할 이 시점에, 이미 추수를 위해 일군을 양성하는 신학대학원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은수박사님은 “신학교육의 세계화 관점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문화환경이 바로 여기 동, 서, 남, 북을 연결하는 교차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리잘의 타이타이, 올티가스 에비뉴의 카이티클링 교차로에 위치한 정원이 아시아-태평양 나사렛신학대학원이 된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살전 5:24)는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필리핀 격언은 “*Matibay ang walis, palibhasa'y magkabigkis*” 인데 번역하면 “*화초는 줄기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기에 견고하다*”입니다. 이 말은 화초뿐 아니라 인간들에게도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서로 함께 서 있음으로서 힘을 얻습니다. 전도서 4장에 이 진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지난 11월에 우리는 APNTS 창립 33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지난 33년간 재정의 위기, 자원의 부족, 필요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부족, 신입생의 감소, 그리고 문자적인, 또한 상징적인 폭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으로부터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캠퍼스 주변으로 모여든 단단한 줄기들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을 향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계속 유지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로 묶은 그 줄기들은 무엇입니까?

첫번째 줄기는 **헌신된 교수진입니다.** APNTS 설립 초기에 교단의 지도자들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건한 교수들은 그들이 아-태 지구 내에 거주하든 (한국, 일본 호주) 다른 지역에 거주하든 (영국, 캐나다, 미국) 모국을 떠나 신학대학원에 와서 가르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하지만 개교이래로 APNTS는 학문적 탁월함을 인정받았으며 은사를 가진 경건한 교수진들에 의해 헌신된 학생들이 유능한 목회자로, 효율적인 선교사로, 아동, 청소년 사역과 첨단 도시 사역의 창의적인 지도자로 훈련되는 장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수진의 자기 개발, 연구와 집필, 그리고 질 좋은 교육을 통해 우리의 성결적 사명을 진일보시키는 노력에 동참할 새로운 교수진 확보를 위해 재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필리핀 내에서 나사렛교회의 사역이 번창함에 따라 APNTS 졸업생들은 교회 개척과 개인, 공중 전도의 선봉대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앎과 행함의 필수적 동반자 관계인 믿음과 사역의 성경적 친밀감을. 수업과 삶을 통해 강조한 교수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많은 경우에 교수들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역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도록 좋은 가르침의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졸업생 중 200여명은 목회자와 선교사로 섬기고 있고, 그들의 직업을 교수나 학교 행정가라고 한 졸업생들이 100여명이며, 학업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졸업생들은 학교나 신학교, 그리고 여기 APNTS에서 교수진으로, 행정가로, 신학교 학장으로, 목회자로, 감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장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담후 1장에서 바울은 위대한 멘토만이 할 수 있는 충고를 젊은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사역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복음의 확산을 계속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통해 그에게 보여 졌던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 유지하고 "그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듯"하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은 단순하지만 동시에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표현한 것 처럼 우리 삶을 다른 사람에게 부어서 가르침, 훈련 및 멘토링을 통한 리더십 증대를 가져와야 하고,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횃불을 전달해야 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은 전도와 교육, 세례주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면서 캠퍼스의 성공적인 운영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우수한 직원들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있고, 또 망치를 들고 있는 그들을 매일 만납니다. 운전하는 일과 지시하는 일, 회의를 주재하고 또 힘든 장소에서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미소와 경건함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APNTS의 교수들과 직원들은 아시아와 태평양지역, 그리고 세계를 향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 줄기는 열심히 있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전 원장이신 존 닐슨박사님은 1990년도에 행한 그의 취임사에서 "우리의 평신도들은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고 그래서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에 대해 더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매우 훌륭하고 똑똑한 선남선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들여 사역에 임해야 하고 교회는 그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젊은 남녀들은 반드시 강인한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거룩한 유산을 새로운 세대로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며, 내일의 변화무쌍한 도전에 직면하여, 사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창조해 내면서도, 또한 그들에게 위임된 유산에 충실하면서 용기를 갖고 그 도전을 이길 수 있다는 명확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983년 11월에 수업을 시작한 이래로 472명이 APNTS 학위과정을 졸업함으로써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학위를 받고 24개국 39개 교단에서 사역에 임하고 있는데 그 중 65%가 나사렛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 부르심에 응답한 학생들의 헌신은 결코 가볍게 받아 들여질 수 없습니다. 교직원 및 교수들은 이 강당을 드나드는 학생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이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희생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 가족과 친한 친구들을 떠나서 이 곳에 왔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시아 여러 곳에서는 APNTS에 와서 공부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채워지지 않은 재정적인 필요가 언젠가 이뤄지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비 학생들이 등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장학금 지원 혜택을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각지에서 학습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APNTS 경험을 그 곳에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역을 위한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원하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의 세 번째 줄기는 APNTS를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지혜롭게 권면하고,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풍성하게 헌금하고, 열렬히 기도하는 전세계, 아-태지구 및 연회 지도자들, 그리고 개 교회 목회자 및 성도들의 후원 네트워크에서 온 것입니다. 캔사스시티에 위치한 세계사역센터와 싱가포르에 있는 아-태지구 사무실로부터 말과 행동으로 수많은 격려가 있었습니다. 중앙감독 그레이브스 박사님, 교육 커미셔너 콕 박사님, 지구장 마크 로우 박사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는 직원들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 아-태 지구의 6개 필드 전략 코디네이터들을 대표하여 참석한 필리핀-마이크로네시아 필드의 스티븐 구알베르토 목사님과 지구의 교육 코디네이터를 겸하고 있는 호주-뉴질랜드 필드의 존 무어 목사님은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 저와 만남을 갖고 많은 정보와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우리 캠퍼스를 함께 사용하며 마음을 나누고 있는 아-태 자원센터와 세계선교 정보통신국, 그리고 나사렛구제사역부의 국제 콜센터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서 임시직으로 또는 특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돈주고 살 수 없는 가치있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나사렛 연회 감독님들은 제가 이곳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 연회 총회 및 행사를 다닐 때 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난 12월에 마닐라를 떠나는 첫 여행지로 수많은 프로젝트에 헌신적으로 협력해 주신 한국 총회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김영수감독님과 임원들의 환대를 받았고, 그 주간에 설교할 기회를 가졌던 3교회의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한국 나사렛 대학교의 친구들로부터 따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장으로서 신대원을 대표하여 이 지구 내 많은 나사렛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며 여러 곳으로부터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가 세워진 이 대지가 1978년 나사렛 교회에 의해 매입되었을 때, 메트로 마닐라에는 8개 교회와 450명의 정회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메트로 마닐라 연회는 61개의 조직된 교회와 여러 개의 개척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5,400명이 넘는 회원수와 함께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지도력을 가진 10개의 연회가 이 섬나라 전역에 존재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APNTS는 학생들과 교수진, 직원들을 위한 재정적 후원과 기도 후원으로부터 사역할 수 있는 기회까지 우리가 위치한 이 나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매 교단인 웨슬리안교회와 2020 감동 2020년 관계는 수년 동안 56 명 이상 졸업생과 뛰어난 2020년 제공할 만큼 강합니다. 장로님, 침례님, 2020년, 하나님님 성도님 각 2020년 속한 우리 주변 2020년 독립2020년 협력2020년 2020년 일 2020년 필2020년 2020년 2020년 온 학2020년 또 APNTS2020년 잘 지내2020년 많은 기여를 2020년 있습니다.

네 번째 줄기는 지역사회 단체, 학술 단체 및 정부 기관과의 소중한 연합관계입니다. 오늘 조릭 가쿨라 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영광입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주고 우리가 하는 일에 신뢰를 보내주는 이 지역의 많은 훌륭한 사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또한 아시아 신학 협회 사무 총장이며 필리핀에 있는 아시아 신학대학원의 처장이신 테레사 루아 박사님께서 참석했습니다. 박사님의 참석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우수한 박사 과정 3

개를 함께 개설하고 2016년에 우리 학교 첫 박사 과정 졸업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협력한 아시아 신학대학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CHED (필리핀 고등 교육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교육 기관에 혜택을 주는 그들의 지도력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없이는 생존할 수도, 번성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는 다섯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줄기는 우리에게 공동의 목적을 주신 위대한 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APNTS는 웨슬리언의 전통 속에서, 사역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력과 탁월함을 갖춘 남녀와, 아시아, 태평양 및 전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 할 수있는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를 준비시키기 위해 이곳에 심어졌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위한 문화의 다리잇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 캠퍼스 내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매일 마주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된 교수, 직원 학생으로서 성결을 가르치고, 훈련하며, 성결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숙사에서 격식을 차리지 않고 음식을 나누며, 매월 두 번 교수 집에서 만나는 코이노니아 그룹이 있어서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위한 후원과 책임성을 나누고,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토론을 통해 이런 노력을 지속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씩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며 성스러운 순간을 함께 나누는데 성가대와 찬양팀, 기도팀에 참여하기도 하고, 주일과 주중에는 지역 교회 예배와 행사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농구나 배구 경기, 학생회 (SBO) 행사 및 봉사 프로젝트를 통해 우정을 향상시킵니다. 우리는 개인의 필요를 더욱 인식하고 참여하여 이웃 가족을 사랑하고 후원하게 됩니다. 또한 캠퍼스 외곽에 있는 로웨나 지역 사회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통해 사회적 필요에도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들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 목적"은 단순한 "밀접하게 하나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시아, 태평양 및 세계 전역에서 나누고 그리스도를 위한 문화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초점은 결코 내향적이 아니라 항상 외향적이어서 절망적인 사람, 무력한 사람, 찾고있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에게 향합니다. 오늘날의 학생들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훈련 과정으로서 박사 학위 프로그램, 전인적 아동 발달 영역, 사회 정의 및 변화적 치료 영역 등이 우리의 사역 프로그램에 추가되었습니다.



우리의 신학적 멘토인 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적이지 않은 종교를 모른다. 사회적이지 않은 성결을 모른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목적은 인도, 미얀마,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파푸아 뉴기니, 피지, 필리핀, 그 외의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일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합류하도록 부르시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목적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직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세번째이자 마지막 필리핀 격언은 ***Ang hindi lumingon sa pinanggalingan, hindi makakarating sa paroroonan***, 로서 해석하면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모여 우리의 시작을 되돌아 보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선한 일을 받아 들임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회상은 궁극적으로 개인으로서, 또한 교육 기관으로서 우리가 현재 이 곳으로부터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미래를 향해 우리 신학대학원이 어떻게 해야 최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가 되고 멘티가 됨으로서 후에 똑같이 다른 사람을 제자삼고 멘토가 되어야 할 젊은 신자를 위해서, 음식과 피난처, 그리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소속감을 필요로 하는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와,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무시 당하고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구속자를 필요로 하는 가치있는 그들을 위해서 사역할 목회자와 섬김의 종들을 교육하는 사명을 우리가 지속할 때에 우리를 이끌 목표와 열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왜 할 것인가를 점검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제가 종교학 학사학위를 위해 트레베카 나사렛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제가 가장 존경했던 교수 중 한 분이 밀드레드 와인쿱 박사님이었습니다.

와인콕 박사님은 나사렛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었으며 나사렛 교회의 여러 움직임 초창기에 여성들의 지도력을 대표하는 정신적 지주였으며 현재 우리 교단에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강조되고 있는데 그럴만한 가치를 지닌 분입니다. 플로이드 커닝햄 박사님은 아시아에서의 목회자 양성 교육에 관해 쓴 글에서, 와인콕 박사님은 나사렛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1960년대 초 일본에서의 교육 기관을 재조직하는 과제를 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행한 과제의 결과는 일본에 신학 대학원을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나사렛 교육 기관들이 설립된 것은 그 나라에 이미 확립된 전도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교육적 근육과 뼈에 의해 지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전도 설교가 교단 초창기의 특징이었지만 "전도는 '생각의 기초를 재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강한 성격을 가진 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다른 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선구자적 안목은 성장기 나사렛교회를 포함하여 자매 교단의 사람들로 하여금 잃은 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뿐 아니라, 신학적이고 교회론적인 관점의 강한 근육과 뼈를 갖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경이로움을 증거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책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진리를 깊이있게 연구하고 탐구함으로써 형성되는, 균형잡힌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교단의 오랜 전통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너무 강해서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적의 화살에 견딜 수 있도록 근육은 반드시 운동해야 하며 뼈는 견고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아주 건강한 마음을 개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려는 마음을 키워야 하며 이웃과 마을에 그 말씀을 상황화하고 전하기 위해 우리의 손과 발은 훈련받고 단련되어야 합니다. 나사렛신학대학원보다 더 머리와 마음과 손을 훈련시킬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제2대 원장이셨던 페어뱅크 박사님은 1985년도에 행한 그의 취임연설에서 신학대학원 공동체의 중추적인 역할과 졸업생들의 세상 참여를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육 과정의 기본적인 취지는 말씀과 세상사이, 연구와 참여사이, 신학과 사역사이, 신학대학원과 사회사이, 그리고 교실과 교회사이의 통합입니다. 모든 학위 과정 안에서 신학대학원은 효과적으로 개인 개발, 영적 성장, 신학적 민감성, 문화적 인식, 사회적 의식 및 실제적 기술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건전한 신학 교육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석사 학위 및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한 전문적 연구 및 글쓰기의 엄격한 요구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대학원 교육의 "허브" 역할을 계속 수행 할 것을 확언합니다. 하지만 제가 또한 믿는 것은 미래에는 목회자, 선교사나 지도자로 나아가는 졸업생들이 각 나라들과 상황의 다양성 안에서 실제적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회에 따라 캠퍼스 이외의 지역에 추가적인 교육 센터를 설립하여 공식적인 교육 훈련을 바라지만 마닐라로 와서 캠퍼스에 상주하며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대학원 교육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필드와 연회 지도자들과 협력해야 하고 지구내의 다른 교육기관들과도 협력하여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들로서 APNTS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을 외래교수로 초빙하고, 찾기 쉽고 편리한 지역을 물색하고, 분교 형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의 재정 확보를 해야 합니다. 함께,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지지하는 줄기들이 함께 하여,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지역을 물색하면서도 이곳 주 캠퍼스를 소홀히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새로운 학생들을 각 학교로 이끄는 가장 주된 요소는 학생으로서의 경험입니다. 교실과 도서관, 예배당, 식당, 기숙사 등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교직원들을 통해 얻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 그리고 학문적, 영적, 사회적, 물질적으로 격려받고, 후원을 받고, 돌봄을 받는 경험을 통해 그들이 계속 공부를 하여 졸업을 하느냐 마느냐 뿐 아니라 그들의 교회나 공동체, 가족들에게 APNTS를 추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주 캠퍼스의 강점은 지역 교육센터들과 그 교육과정을 위한 강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자원들이 주어지는 대로 양면이 모두 성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APNTS의 제 5대 원장이셨던 폴 후쿠에 박사님은 그의 취임연설에서 “이 세상의 문제는 점점 복잡해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날과 미래의 기독교 사역자들은 이러한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과 대면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보조적인 자기 훈련과 더불어서 우리의 뿌리를 성경, 역사, 조직, 실천 신학에 깊이 빠뜨리는 것 이외에는 신학 교육에 대한 필요가 충족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강한 뿌리는 영양섭취와 성장을 위해 깊이 자라야 하며 안정성과 힘을 위해 바깥쪽으로 퍼져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APNTS

캠퍼스에서나 혹은 다른 나라에 설치된 APNTS 학습센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APNTS 학위의 가용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국제 나사렛교회, APNTS 이사회, 저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께 제 개인적인 감사를 간략히 표함으로서 제 취임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1974년, 청소년 부흥집회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셨을 때, 미국 테네시 주의 갤러틴이라는 소도시에서 자란 17세 소년이 이런 과업을 수행하게 될 줄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몇 년간 주께서 이끄시는대로 순종하기를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이 얼마가 될 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캠퍼스로 저의 날들을 정하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캠퍼스에 도착한 이래로 몇 달동안 여러 사람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함께 살고 일하고 사역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발전하는 이 캠퍼스를 향한 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함으로서, 주어진 목적을 이루고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훈련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더 위대한 날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제 삶을 변화시켰던 말씀은 에베소서 3:14-21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올렘이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으셨기에 저는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제 마음을 온전히 하늘 아버지께 드렸던 그 토요일 밤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심으로 제 이름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믿음으로 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알게 하심으로 제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 유산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가장 큰 소망은 20-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더 넘치도록 능히! -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꿈, 소망, 비전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그분의 약속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과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멘!**

## References

Cunningham, Floyd T. "Asia-Pacific Nazarene Theological Seminary: The First Twenty Years."

*The Mediator*.

Cunningham, Floyd. (1996.) "Education for the Preparation of Ministers in Asia." *The Mediator*.

*Vol. 1, No. 1.*

Fairbanks, E. Lebron. (1985). "Theological Education for a God-called Ministry: Inaugural

Address." *The Mediator*.

Fukue, Hitoshi (Paul). With Roots and Branches. Inaugural Speech at Asia-Pacific Nazarene

Theological Seminary.

Im, Seung-An. (2014). "The Best and Great APNTS of the Cross: Inaugural Address." *The*

*Mediator*.

Nielson, John M. People of the Paradox: Inaugural Address. April 7, 1990.

Owens, Donald Dean. Missiological Education as Missionary Theology

Owens, Donald Dean. "Some Reflections on Building Bridges." *The Mediator*.

[Missions Mobilizer. 10/40 Window: Do you need to be stirred to action?](#)

<https://home.snu.edu/~hculbert/1040.htm>. Retrieved March 7, 2017.

Pedlar, James. Four Wesley Quotes Everyone Should Know. May 21, 2011.

<https://jamespedlar.wordpress.com/2011/05/21/four-john-wesley-quotes-everyone-should-know/>